

##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김재철\*\* · 최지영\*\*\*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의 개인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에서 단계적유층군집방법으로 표집한 총 2,844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2004~2008)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친한 친구 일탈경험과 친구 스트레스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또한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외현적 공격성, 내면화된 문제행동, 친한 친구애착, 일탈, 친구스트레스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choi0122@hnu.kr

## I. 서 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적 공격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애, 2003; 손은정, 장유진, 2008; 신혜섭, 2005). 그러나 여학생들도 공격양상이 다를 뿐이지, 남학생들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Crick & Bigbee, 1998; Crick & Werner, 1998).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따돌린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특정인을 소외시키는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하나의 일관된 경향보다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박민정, 최보가, 2001; 이은주, 2001; Cairns et al., 1989) 학령기 초기에는 남학생은 외현적 공격성,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남녀 학생 모두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성차가 뚜렷하지 않지만, 외현적 공격성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다(배아영, 2006; 박영신, 2005; 심희옥, 2003).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성향이 타인을 향해 투영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속성이 있는가, 또는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공격성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현적 공격성에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비언어적 공격성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공격성의 예로는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언어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놀리는 행동 등을 포함하고, 비언어적 공격성의 예로는 언어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으로 헐뜯는 등의 행동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외현적 공격성은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타인을 향해 표출되는 공격성을 의미하는 반면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자신의 내부를 향해 표출되는 감정을 포함하며, 주로 우울과 불안 등의 감정을 의미한다(오경자 외, 2001; 이민식, 오경자, 2000; Achenbach, 1991).

우울과 불안 등의 내면화된 문제 행동은 일반적으로 이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녀 학생 1,73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최근의 한 연구(이창호 외, 2005)에 의하면, 우울수준의 경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생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 수준의 경우에도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연구들(김정민, 이정희, 2008; 배정미, 2006)이 있는가 하면, 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연구(최인재, 2007)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과 우울 수준이 낮고,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단자료를 사용한 최근의 한 연구(서미정, 2008)에서는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횡단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성별과 학년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 행동의 변화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종단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에 비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회적 압력 또는 동조의식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성 및 성격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128p).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에 또래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해도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Kallgren et al., 2000).

따라서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친구의 영향, 특히 친한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면화된 문제 행동에서 불안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외, 2005). 또한 친한 친구가 행동문제가 많을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행동문제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Berndt & Keefe, 1995; Svensson, 2003). 이는 친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친한 친구와의 친밀감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데(김준호, 박미성, 1993; 박현수, 김준호, 2008), 유사한 맥락에서 친한 친구와의 친밀감이나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경상, 박현수,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 중에서도 특히 친한 친구 관련 변수들이 청소년의 공

격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 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의 개인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5년 동안(2004~2008) 수집한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n Youth Panel Survey)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표본으로 선정된 학생은 2,844명이고 이 중에서 남학생은 1,524명(53.6%), 여학생은 1,320명(46.4%)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으로 정의된다.

### 1) 외현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현적 공격성은 6문항으로,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현적 공격성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alpha$  계수는 각각 .757, .800, .795, .795, .807이었다.

### 2) 내면화된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불안, 우울, 자살충동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며, 총 6문항으로,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불안, 우울, 자살에 대한 충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내면화된 문제행동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alpha$  계수는 각각 .794, .846, .845, .840, .854이었다.

### 3) 친한 친구 접촉빈도

본 연구에서는 ‘매우 친한 친구들과 일주일에 몇 일 정도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친한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확인하였다.

### 4) 친한 친구애착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애착은 매우 친한 친구들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등의 4개의 문항을 통해서 평소에 잘 어울리는 학교 친구, 동네 친구와의 친밀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친한 친구들에 대해 애착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친한 친구애착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alpha$  계수는 각각 .658, .728, .775, .810, .810이었다.

### 5)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등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행한 빈도 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alpha$  계수는 각각 .733, .866, .773, .834, .881이었다.

### 6) 친구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구 스트레스는 3문항으로,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그런 적 없다, 5=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 스트레스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alpha$  계수는 각각 .800, .838, .841, .830, .851이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따랐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적 성장모형(linear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별 변화양상이 직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형적 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구하였고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유의확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i^2$ , TLI(일명, NNF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모형 적합성의 판단기준은  $\chi^2$ 은 유의확률이 .05보다 더 클 때이고, TLI).90, CFI).90, RMSEA(.05일 때이다(서민원, 1995; 홍세희, 2000). 선형적 성장모형에서 적합도가 양호함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개인별 변화양상을 더 복잡한 함수로 가정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통해 무 성장모형(no growth model)이 바람직하지 않음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growth model)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의 기본 원리는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쟁모형 간의 차이를  $\chi^2$ 검정으로 비교하는 것이다(홍세희, 2001).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초기값의 평균이 남녀 간에 서로 동일하다.'라는 경쟁모형A, '변화율의 평균이 남녀 간에 서로 동일하다.'라는 경쟁모형 B,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이 남녀 간에 서로 동일하다.'라는 경쟁모형C를 설정한 후, 기저모형과 경쟁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포함한 성장모형(growth model with time-invariant covariate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평균 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독립변수 곱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였다. 예컨대 다음 식에서  $X_1$ 과  $X_2$ 가  $Y$ 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b_3$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보면 된다.

$$Y' = b_0 + b_1X_1 + b_2X_2 + b_3(X_1 - \bar{X}_1)(X_2 - \bar{X}_2)$$

분석을 위한 자료 정리와 기초적인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였고, 성장모형은

Mplus 3.0(Muthen & Khoo, 1998; Muthen & Muthen, 2006)을 활용하였다. 모수 추정방법은 ML법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 분석결과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학년별·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표 1>과 같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남녀별로 본다면 외현적 공격성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의 변화 속도가 더 커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심해졌다.

<표 1>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학년별·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수	성	초등 4년		초등 5년		초등 6년		중등 1년		중등 2년	
		M	SD								
외현적 공격성	남자	2.43	.78	2.49	.79	2.52	.75	2.59	.74	2.57	.77
	여자	2.26	.72	2.36	.77	2.51	.79	2.59	.79	2.60	.76
	전체	2.35	.76	2.43	.79	2.51	.77	2.59	.76	2.59	.77
내면화된 문제행동	남자	2.08	.80	2.13	.85	2.15	.81	2.18	.79	2.16	.80
	여자	2.15	.85	2.12	.85	2.28	.85	2.39	.85	2.49	.84
	전체	2.11	.82	2.12	.85	2.21	.83	2.28	.82	2.32	.84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적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직선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 즉 선형적 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이들 두 변수는 모두 CFI, TLI가 .97을 초과하였고 RMSEA는 .50미만이었다. 그리고 변화율의 평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직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외현적 공격성은 매년 .064만큼,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매년 .054만큼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이들 두 변수의 개인별 변화는 개인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들 두 변수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표 2>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성장모형 분석결과

변수	a		b		r(ab)		x <sup>2</sup> [df]/p	CFI/TLI/RMSEA
	M	VAR	M	VAR	COV	CORR		
외현적 공격성	2.365**	.283**	.064**	.022**	-.038**	-.477**	67.192[10]/.000	.975/.975/.050
내면화된 문제행동	2.098**	.298**	.054**	.022**	-.038**	-.465**	65.242[10]/.000	.971/.971/.049

a: 초기값, b: 변화율, r(ab): a와 b의 관계  
M: 평균, VAR: 분산, COV: 공분산, CORR: 상관, \*\*p<.01

<표 3> 성장모형을 이용한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의 남녀 비교

교과	구분	남		여		x <sup>2</sup> [df]/p	CFI/TLI/RMSEA	기타	
		estimate	s.e.	estimate	s.e.				
외현적 공격성	a	M	2.446**	.020	2.274**	.020	78.423 [20] .000	.974/.974 .051	잔차 분산 ↓ 공분산 생략
		VAR	.266**	.022	.286**	.021			
	b	M	.039**	.007	.092**	.007			
		VAR	.021**	.003	.022**	.002			
r(ab)	COV	-.038**	.006	-.033**	.006				
	CORR	-.502**	-	-.424**	-				
내면화된 문제행동	a	M	2.105**	.021	2.087**	.023	84.896 [20] .000	.965/.965 .054	
		VAR	.257**	.007	.342**	.027			
	b	M	.018**	.024	.095**	.007			
		VAR	.019**	.003	.024**	.003			
r(ab)	COV	-.034**	.007	-.042**	.008				
	CORR	-.488**	-	-.466**	-				

a: 초기값, b: 변화율, r(ab): a와 b의 관계  
M: 평균, VAR: 분산, COV: 공분산, CORR: 상관, \*\*p<.01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표 3>과 <표 4>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초기값은 남학생이 2.446으로서 여학생 2.274보다 더 높았지만(  $\chi^2=35.465$ ,  $p<.01$ ), 변화율은 여학생이 .092, 남학생이 .039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chi^2=3.759$ ,  $p<.01$ ).

둘째,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초기값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chi^2=.328$ ,  $p>.05$ ), 변화율은 여학생이 .095, 남학생이 .018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chi^2=55.439$ ,  $p<.01$ ).

<표 4> 성장모형을 이용한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의 남녀 차 검정 결과

모형	외현적 공격성				내면화된 문제행동			
	$\chi^2$	df	$\chi^2$ 차이	df차이	$\chi^2$	df	$\chi^2$ 차이	df차이
기저모형	78.423	20	-	-	84.896	20	-	-
경쟁모형A	113.888	21	35.465**	1	85.224	21	.328	1
경쟁모형B	109.182	21	3.759**	1	14.335	21	55.439**	1
경쟁모형C	119.310	22	4.887**	2	171.387	22	86.491**	2

\* $p<.05$ , \*\* $p<.01$

경쟁모형A: 초기값이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경쟁모형B: 변화율이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경쟁모형C: 초기값과 변화율이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 2.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 비교 결과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포함한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와 <표 6>은 이에 대한 결과이며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 비교 결과

기준변수	예측변수	b	s.e.	$\beta$	R <sup>2</sup>
외현적 공격성 변화율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13	.010	.045	.041**
	친한 친구애착(B)	.006	.011	.018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29**	.008	.119	
	친구 스트레스(D)	-.024**	.009	-.090	
	A×B	-.019	.018	-.036	
	A×C	-.005	.020	-.008	
	A×D	.024	.017	.047	
	B×C	.057*	.020	.100	
	B×D	-.018	.015	-.040	
	C×D	-.008	.011	-.026	

\*p<.05    \*\*p<.01

첫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한 친구애착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의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친구 스트레스는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의 친구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둘째,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친한 친구애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는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함을 의미한다.

넷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 비교 결과

기준변수	예측변수	b	s.e.	$\beta$	R <sup>2</sup>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율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08	.011	.026	.016**
	친한 친구애착(B)	.015	.012	.044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10	.009	.039	
	친구 스트레스(D)	-.019*	.010	-.071	
	A×B	.006	.020	.012	
	A×C	-.005	.021	-.009	
	A×D	.024	.018	.048	
	B×C	-.011	.022	-.019	
	B×D	-.027	.016	-.060	
	C×D	-.009	.012	-.030	

\*p<.05    \*\*p<.01

<표 5>와 <표 6>의 결과가 남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과 <표 8>은 이에 대한 결과이며,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 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6.0%, 여학생이 9.0%로써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영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컸지만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컸다. 특히 친구 스트레스의 경우, 그 정도가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의 남녀 비교 결과

기준변수	예측변수	b		$\beta$		R <sup>2</sup> 남/여
		남	여	남	여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11	-.011	.039	-.036	
	친한 친구애착(B)	-.029	.018	-.093	.050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29**	.096**	.142	.289	
	친구 스트레스(D)	-.028*	-.025	-.106	-.091	
외현적 공격성 변화율	A×B	-.033	-.030	-.067	-.055	.060**
	A×C	.006	-.087*	.013	-.127	/.090**
	A×D	.040	-.009	.084	-.017	
	B×C	.063*	.055	.133	.076	
	B×D	-.031	.005	-.076	.010	
	C×D	-.010	.020	-.040	.038	

\*p<.05    \*\*p<.01

둘째,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던 반면, 여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졌고, 여학생은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많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5.7%, 여학생이 3.2%로 남학생이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컸다. 특히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구 스트레스 및 친한 친구애착과 친구 스트레스가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높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더 높아진 반면,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의 남녀 비교 결과

기준변수	예측변수	b		$\beta$		R <sup>2</sup> 남/여
		남	여	남	여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율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22	.029	-.082	.095	.057** /.032**
	친한 친구애착(B)	-.010	-.008	-.035	-.021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27**	.033	.138	.095	
	친구 스트레스(D)	-.022	-.024	-.087	-.086	
	A×B	-.016	-.005	-.035	-.009	
	A×C	.000	.005	.001	.007	
	A×D	.058*	-.028	.129	-.052	
	B×C	.008	-.043	.019	-.057	
	B×D	-.056**	.018	-.149	.034	
C×D	-.013	.031	-.061	.056		

\*p<.05    \*\*p<.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의 개인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에서 단계적유층군집 방법으로 표집한 총 2,844명(남학생 1,524명, 여학생 1,32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2004~2008) 수집한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가면서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의 변화 속도가 더 커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여학생의 변화율이 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청소년 초기에 내면화된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박종효, 2007)와 일관되는데, 여학생의 경우, 특히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적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내부를 향한 우울이나 불안의 감정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학생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포함한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과 친구 스트레스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친구 스트레스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친구 스트레스는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행위가 친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이경상, 박현수, 2004) 결과를 고려해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다. 친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 친구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외현적 공격성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첫째, 친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로부터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적 혹은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들의 공격성은 사회적 지배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Hawley, 1999; Pellegrini, 2007), 이 이론에서는 한 집단 내에서 서열상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쉽게 누군가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격행동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학급이나 학교 내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고, 자신의 서열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공격행동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

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친한 친구 일탈 경험의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이 많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행동을 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경우, 한 때 단짝이었던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해학생과 연합하여 제 3의 학생을 함께 괴롭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문용린 외, 2007). 특히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시기에 여학생들에게 친밀한 우정관계가 사회적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타당해 보인다.

셋째,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친한 친구애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는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남녀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졌다.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는 다르게 친한 친구애착은 친구들과 함께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부분과 관련된다.

넷째, 여학생의 경우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여학생은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많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공격행동의 주요 특징이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선행 연구들(문용린 외, 2007; Crick & Bigbee, 1998; Crick & Werner, 1998)을 토대로, 친한 친구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외현적 공격성의 유형과는 다른 관계적 공격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빈번한 접촉을 한 친한 친구들이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자주 만나는 친구 중에 일탈행동을 하지 않은 모범적인 친구가 있을 경우, 다른 친한 친구들의 일탈행동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학생들은 불안이나 우울, 또는 자살충동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므로 천장효과(ceiling effect) 때문에 대폭 증가하기가 어렵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전체적으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큰 반면 남학생은 내면화된 문제 행동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들에 의해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친한 친구들에 의해 불안이나 우울, 자살충동 등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본다면,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컸다. 특히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구 스트레스 및 친한 친구애착과 친구 스트레스가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높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더 높아진 반면,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한 친구애착의 개념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친한 친구 접촉빈도는 객관적인 접촉빈도라고 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애착은 친구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또는 친밀감이

다. 따라서 친한 친구와 자주 접촉하는 것 자체는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수록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데 반해, 친한 친구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은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불안이나 우울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으며,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을 비행에 대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탐색하고, 이러한 개인별 변화양상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몇 가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표집을 사용한 기존 연구결과(박종효, 2007; 이창호 외, 2005)에 의하면,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초등학교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다 중학교 3학년에 정점을 이룬 후 고등학교 시기에 다소 완만하거나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3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에서는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에 수행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조정아, 2009)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중 3 시기부터 고 3 시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윤주, 2004; 최인재, 2007).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청소년패널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추이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성식, 2002; Thornberry, 1987)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라 그들의 공격성과 비행에 부모와의 유대가 미치는 영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유대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청소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큰 반면, 점차적으로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전 발달과정에 걸친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정익중, 2009; Moffitt 외, 2002)에 따르면,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나 비행은 몇 가지 발달모형으로 구분된다(예, 무비행형, 후발형, 저비행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등). 이러한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모형에 따른 친한 친구 변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발달모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라는 특성 상 많은 수의 문항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측정 문항의 수를 더 늘린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동기·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제8권 제2호, pp.21-42.
- 김선애(200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 가정학회지)*, 제12권 제3호, pp.321-336.
- 김정민·이정희(2008).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성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생활연구*, 제12권, pp.115-128.
- 김준호·박미성(1993). 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용린·최지영·백수현·김영주(2007).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피해자 상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3호, pp.703-722.
- 박민정·최보가(2001). 아동학대 및 학교에서의 폭력경험과 아동의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pp.105-118.
- 박영신(2005).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효(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논문집, pp.209-230.
- 박현수·김준호(2008).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친구와의 친밀감과 비행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327-356.
- 배아영(2006).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 괴롭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정미(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3호, pp.308-317.
- 서미정(2008). 초기 청소년기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4호, pp.115-138.
- 서민원(1995). 대학교육의 효과성 변인의 측정과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정·장유진(2008).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에 및 지배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80-481.
- 신혜섭(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123-149.
- 심희옥(2003).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교사보고에 따른 문제행동과

- 유능성: 학년과 성별 비교. *이동학회지*, 제24권 제2호, pp.79-92.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윤혜미·박병금(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28권, pp.133-164.
- 이경상·박현수(2004). 청소년 비행과 친구 스트레스. 제 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121-132.
- 이민식·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4호, pp.727-745.
- 이성식(2002).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인과관계.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pp. 67-87.
-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이동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67-180.
- 이은주(2009).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141-171.
- 이은희·공수자·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1호, pp.123-145.
- 이창호·양미진·이희우·이은경(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이동학회지*, 제25권 제6호, pp.205-223.
- 조정아(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 부모, 또래, 교사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pp. 167-192.
- 정익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과정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pp. 253-280.
- 최인재(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6권 제3호, pp.611-628.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form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erndt, T. J., & Keefe, K.(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6*, pp.1312-1329.
- Cairns, R. B., Cairns, B. D., &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pey, J. (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5 No. 2*, pp.320-330.
-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6 No. 2*, pp.337-347.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Vol. 69 No. 6*, pp.1630-1639.
- Fergusson, D., & Horwood, L.(1999). Prospective childhood predictors of deviant peer affiliations in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0*, pp.581-592.
- Hawley, P. H.(1999). The ontogenesis of social dominance: A strategy-based evolutionary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Vol. 19*, pp.97-132.
- Haynie, D. L., & Osgood, D.(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Vol. 84 No. 2*, pp.1109-1130.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llgren, C. A., Reno, R. R., & Gialdini, R. B.(2000).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when norms do and do not affect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6*, pp.1002-1012.
- Moffitt, T. E., Caspi, A., Rutter, M., & Silva, P. A.(2002). *Sex differences in antisocial behavior: conduct disorder, delinquency, and violence in the Dunedin Longitudinal Stud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then, B. O., & Khoo, S. T.(1998). Longitudinal studies of achievement growth using latent variable model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Special issue: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Vol. 10*, pp.73-101.

- Muthen, L. K., & Muthen, B. O.(2006). *Mplus user's guide*. 4th Edition. Los Angeles: Muthen & Muthen.
- Pellegrini, A. D.(2007). Is aggression adaptive? Yes: some kinds are and in some ways. In P. H. Hawley, T. D. Little, & P. Rodkin (Eds), *Aggression and adaptation*, pp.85-105, Mahwah, NJ: Erlbaum.
- Reitz, E., Dekovic, M., Meijer, A. M., & Engels, R.(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6 No. 3, pp.272-295.
- Svensson, R.(2003).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rug use: The impa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deviance. *Youth and Society*, Vol. 34 No. 3, pp.300-329.
- Thornberry, T. P.(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5, pp.863-891.

## ABSTRACT

### Adolescents' Individual Change in Overt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he Effect of Close Friends Variables

Kim, Jae-Chul\* · Choi, Ji-You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individual changes in overt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o observe how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close friends, close friend attachment, delinquency of close friends, and friend stress impact upon the individual changes in overt aggression and the in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early adolescents, taken from a sample of 4th grades to 8th grades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several significant findings. First, overt aggression and the in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increase over time for both males and females. Second, the delinquency of close friends and friend str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ate of change in overt aggression. Third, there was an interactive effect of close friend attachment and delinquency of close friends to the rate of change in overt aggression. Fourth, friend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in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education, practice and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longitudinal research were discussed.

---

\* Departmen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ey Words** : overt aggression, in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close friend attachment, delinquency, friend stress

투고일 : 12월 7일, 심사일 : 1월 20일, 심사완료일 : 1월 20일

